



교회 안에서의 감정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넘어서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맞보기 위하여 신비한 체험을 적극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은 그래야만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보편적인 상황처럼 이야기하면서 신비한 체험들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인간함을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기상조의 구속 즉, 아직 나타나지 않은 영광을 극적인 방법으로 경험하기를 학수고대하며, 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바로 지금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복음이 말하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종종 이적과 기사를 간구하면서 이세상의 삶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만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길 간절히 고대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체험을 맞보기 위하여 울부짖으며 다른 신앙인들과는 전혀 다른 수준 높은 영적 체험자임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체험담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작 그들은 자신들을 초월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받기 위하여 자신들을 내어주는 삶에는 관심이 없이 다만 흥내를 내는 말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신앙인

의 삶이란 황홀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생활로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인의 삶은 모든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전환하기 위한 몸부림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완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몸소 지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 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의 가장 큰 유혹의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들 자신의 체험을, 교회와 성경과 같은 외적 권위 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내적인 음성과 환상은 종종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려는 욕심이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 넘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감정주의 자나 신비주의자가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모르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들은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자신의 무가치함을 점점 깨닫게 되며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의를 깊이 의지하며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의 짧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신의 모든 물질과 자신의 모든 지식까지도 배설물처럼 여기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 옮긴 글 -

주일낮 설교



감사할까 엡 2:1-10

기쁨이 없는 신앙 ㉠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면, 신자는 성경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곧 은혜와 평강이며 은혜와 평강은 더 구할 것도 얻을 것도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뭔가 더 받고자 하는 것은 관심을 자기에게 두고 있다는 증거로써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항상 더 받고 싶어 하고 더 받을수록 감사와 기쁨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감사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충만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충만의 은혜 또한 알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부족한 것으로 인한 실망과 한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부자 된 나' '성공한 나' '제상이 부러워하는 나' 를 상상합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나' 를 따로 구축해 놓고 항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불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나' 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현재의 형편과 사정을 초월하여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나를 어떤 자가 되게 하였는가를 알게 됨으로써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되고 싶어 하는 자신의 모습을 따로 간직하고 있다면 감사와 기쁨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새로운 사람 ㉡

본문에서 사도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엄청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런 설명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반응일 것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고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격과 감사는커녕 오히려 시큰둥한 반응이 앞서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고 하늘에 앉혔다고 설명을 해도 나는 실제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았고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는 형편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성품이 천사처럼 달라지거나 했습니까?

우리의 육신이나 성품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욕심도 미움도 시기도 그대로입니다. 그 정도가 조금 덜해졌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여전히 교만하며 이기적이고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면 고상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 생활 또한 모범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 비해 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못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병 들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니, 도무지 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

.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일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말하는 그 같은 내용은 예전의 사고방식과 시각에는 도무지 접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는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전혀 다른 차이와 구별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곧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하기 위해 힘쓰기도 하지만 그 같은 생각은 신앙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신앙 또한 굴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자신을 포함하여 에베소 교회 신자 모두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모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절에서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이 해를 입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둘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도 결국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과 함께 육신은 갈수록 파괴되어 갈 것이고, 그 어떤 인간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된 현실임을 안다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

는 것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마음이 현실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현실이 달라졌다고 해도 의미 있는 것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현실로부터 그 마음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현실의 변화를 믿음의 증거로 여기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떻게 변화한다고 해도 결국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며 결국 하나님께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자신과 현실의 변화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옛 성품일 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완전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줄 만한 것을 현실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신자는 그 말씀의 세계를 믿는 것이 곧 구원의 증거일 뿐입니다.

감사할까 ◎

분명한 것은 신자가 말씀의 세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는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곧 우리에게서 충만이며,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에게는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안에서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4.5절을 보면 “궁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훈과 사랑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으로 완벽하게 증거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공훈과 사랑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훈과 사랑을 누리고 있으며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감사할 조건을 골라야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엡 1:5-6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본래 목적이고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공훈과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무엇으로 안되는 일을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는 예수님만이 희망인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신앙을 그런 용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루고 이루지 못한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깨닫게 하고 하늘에 앉힌바 된 생명의 세계를 믿게 됩니다. 이같은 일은 세상 무엇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 믿음이 주어진 것으로도 부족합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주일 오후 설교



사람

알후 2:1-7

(4강 10.31일 설교)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어떤 문제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인가는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강림의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재림과 연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접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재림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2절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즉 예수가 재림했고, 내가 곧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사도에게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사도의 편지를 받았다는 말로써 자신들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신빙감을 더하고, 군중들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이용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차림을 특이하게 하기도 하고 말의 억양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러한 말에 미혹되지도 속지도 말라고 합니다.

3절의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을 보면 사도는 그 날, 즉 재림이 이르는 징조로써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

그 날은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교는 종교를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배반한 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교가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만이 아니라 배교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불법의 사람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단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그런 뜻이라면 주의 날이 이르지 않은 지금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이들은 악한 세력을 뜻합니다. 즉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역시 분명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한 결과가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미 세상에 존재했던 것이 불법의 사람인데,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불법의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불법의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금의 현실과 모순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타났다’는 말을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드러남의 의미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세상에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불법의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하와도 자신에게 접근하는 존재가 악한 영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사람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분명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은 그러한 현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탄에게 장악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누구에게 장악되고 지배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여길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자신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불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배교한 자로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불법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신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에게는 사탄의 자식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실상을 낱알이 드러내신 예수님께 분노하여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며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의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자신을 감추고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지만 불법의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멸망의 아들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행위를 신앙의 근거로 삼고 행위에 의의 의미를 두면서 예수께 나오는 것이 곧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법은 커녕 참된 신앙으로 인정됩니다.

믿음을 도구 삼아 세상의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불법의 사람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고방식임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곧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배신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열심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의 사람으로 인한 사고방식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불법의 사람이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 전에 그 날은 이르지 않습니다.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합니다. 심판의 근거는 불법과 진리입니다. 진리에 순종한 사람은 생명으로, 불법에 순종한 사람은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불법이었는지가 먼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날은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의 말입니다.

4절을 보면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고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법의 사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인이 하나님 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활동하는 증거고, 불법의 사람에게 장악된 현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불법이며 멸망에 해당되는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세상으로 하여금 무엇이 불법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본성에 의해 불법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자기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하십니다. 백성에게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무엇이 불법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법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은 반드시 드러낼 때가 있고 오직 진리에 순종한 사람만이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는 '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다면 '언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언제 이루어지든 진리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진리를 소망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관심일 뿐입니다.

수요일

설교



모습

나 3:1-19

(4장 11.10일 설교)

선지자는 니느웨가 장차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즉 앗수르는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됩니다. 그렇다면 앗수르의 멸망은 악자와 강자의 전쟁의 결과가 아

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흘러가지만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오직 힘을 믿습니다. 힘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큰소리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앗수르의 멸망이 과연 바벨론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1절을 보면 “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눈에 비친 니느웨 성은 피로 가득했습니다. 거짓과 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니느웨 성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악과 거짓과 탈취는 필히 존재합니다. 즉 니느웨 성의 이야기는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니느웨 성의 멸망 이야기는 이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심판을 예고 받는다면 유다는 심판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유다 역시 니느웨의 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도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굽의 영광을 회복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죄에 대해 심판으로 갚으시지만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별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구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모릅니다. 때문에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이 있으면 복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것도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유다가 앗수르에 의해 멸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 앗수르가 복이 있는 쪽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유다는 하나님에게 외면 받고 버림받은 존재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시각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화 있을진저'에 해당된 피의 성으로 바라본다면 다릅니다. 세상이 피의 성에 해당된다면

성이 힘이 있든, 부강해 졌든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안에서 세상은 자랑할 것이 사라집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인된 자를 건져내는 그 능력 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이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편한 인생은 누구나 원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편한 인생을 살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편한 인생을 복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때, 그래서 철저히 무너져 갈 때, 과연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자가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고, 피의 성에 지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편한 인생이나, 세상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절부터의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니느웨 성에 선지자가 말한 그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런데도 니느웨를 평안한 성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비록 그 당시는 평안하고 부를 부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평안이 아니고 저주일 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돈만 있으면 멋들어지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보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오직 돈이 최고일 것입니다. 돈이 곧 복이고 인생 또한 돈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다면, 현재의 평안은 참된 것이 아니고 진정한 현실도 아닙니다. 진정한 현실은 참담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곧 세상이 안고 있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5,6절을 보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리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 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었던 모든 것이 오히려 그들을 부끄

럽게 하는 것이 될 때가 이를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미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갈 6: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 말합니다.

육체로부터 거두어지는 것이 썩어질 것이라면 육체의 열매는 분명 자랑거리가 못됩니다. 오히려 썩어질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 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끄러움이 되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가난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자랑하고 그것을 힘으로 여기는 것이 부끄러움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니느웨에 경고된 멸망의 모습을 보십시오. 앗수르가 자랑하고 믿었던 힘은 다 무너집니다. 존귀한 자,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예고된 참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에 누가 관심을 두었을까요? 지금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결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세상의 결국을 마음에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며 세상의 현실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질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보이는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신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이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 된 것보다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나는 복있는 자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잠시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이 같은 인생의 이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고정시켜 놓으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 암 께
사도신경	다 암 께
찬 송	94장
교 독 문	105(감사절)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490장
성경봉독	엡 2:1-10
설교제목	감사알파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84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5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기도 : 조규연 장로

신윤식



주님 따라 걸으면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찰흙같이 어두운 밤에도
주가 동행하는 길은
등불처럼 환하다

잡초뿐인 들길에서도
주가 함께 하는 곳에
발자국마다 길이 보이고

손을 잡고 걸으면
길이 아니라 해도
가슴 속에 길이 보인다.

주님 따라 걸으면
손짓하여 부르지 않아도
내 곁에 늘
주가 말씀하는 소리 들린다.

주일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 목사

사도신경	다 암 께
찬 송	242장
기 도	김정덕 집사
찬 송	266장
성경봉독	살후 3:1-5
설교제목	미쁘신 주 (7강)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86장
주기도문	다암께

: 김운점 집사

교회소식

1. 추수감사절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인혁, 임수의 부부가 17일에 득남하였습니다.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 목사

아박국 강해(2강)

배	시 간	예 배	시 간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